

의정부소방서, 봄철 산악 사고 예방을 위한 '산악안전지킴이' 운영 알려

소방신문 | 승인 2024.04.08 15:30



의정부소방서는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산행 인구가 증가하는 봄철 등산객의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산악안전지킴이'활동을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활동하고 있는 '산악안전지킴이'는 의정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 1일 4명씩으로 구성되어 주말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북한산 국립공원 회룡탐방지원센터에서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지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 등산객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 ▲ 간이 응급의료소 운영 ▲ 유동 순찰 및 안전산행지도 ▲ 산불 예방 홍보 ▲ 등산로 안전시설 점검 ▲부주의 화재 예방 캠페인 등 산악사고를 대비한 다양한 안전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등산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등산객 개개인이 몸 상태를 고려한 산행계획을 세우는 등 개인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의정부소방서는 안전한 등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악안전지킴이 운영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신문 sobangnews@empas.com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